농어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동 3가)

국문요약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을 통한 유산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에코뮤지엄은 '살아 있는 유산의 역동적 보전'이라는 농어업유산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적용해본 결과,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고 유산관광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유산관광의 4요소(진정성, 교육성, 엔터테인먼트, 향수)를 대비해보면 유산관광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한, 에코뮤지엄으로서 가능성이 높았으나, 에코뮤지엄의 4요소(유산, 박물관, 참여,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체계가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의 4요소를 구축하고, 유산관광의 4요소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콘텐츠 개발, 주민·창조계급·이해관계자의 참여, 사이트 구축, 다양한 학술적 접근, 주민소득 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농어업유산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할 경우에 박물관으로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어: 농어업유산, 유산관광, 에코뮤지엄

* 교신저자(장세길) 전화: 063-280-7173; email: zoru21@jthink.kr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발전연구원

1. 서론

1.1. 연구목적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02년부터 세계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를,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국가농어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산어촌의 자원이 각광받고 있다. 전(前)근대의 상징처럼 홀대받던 자원이 유산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자긍심만이 아니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농어업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서 강조되는 것이 ‘관광’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유산제도를 시행하면서 밝힌 기대효과는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다.¹⁾ 그런데 관광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실제 계획을 보면 관광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살아있는 유산의 ‘역동적 보존(dynamic conservation)’이라는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초기의 세계중요농업유산과 현재의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이 농업유산 자체의 특성보다는 경제적·제도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지만(박종준 & 김상범, 2013: 18), 실제 활용계획을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농어업유산 1호로 지정된 전남 완도 ‘구들장논’의 GIAHS 신청계획서에는 동적 보전계획(Action plan) 중 하나로 ‘다원적 가치 활용전략’이 있다.²⁾ 주요내용은 ‘도시민 교류 경작지원 활성화—구들장논 전승

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04.04), “농식품부, 농어업유산제도 본격도입” 참조

2) GIAHS 신청 계획서(2013) 참조.

운동', '농업유산의 관광체험 상품화—구들장논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업유산 주민교육과정(아카데미)', '농업유산 생물다양성 조사(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 '휴경지 논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관광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구들장논 탁본 체험프로그램', '구들장논 아트페어' 등에 불과하다. 아트페어는 경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규모나 내용 측면만 놓고 보면 구들장논에서만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은 아니다.

GIAHS에서는 경관 자체만을 놓고 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어업활동 전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윤원근 & 최식인, 2012: 484). 농어업유산은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며, 활용하는 전략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 및 지역 활성화 연계방안으로서 총체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Eco-Museum)'에 주목한다. 농어업유산, 유산관광, 에코뮤지엄 모두 '유산'을 중심에 놓고, 유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개념이다. 특히 에코뮤지엄은 유산(Heritage), 박물관(Museum), 참여(Participation)를 핵심요소로 삼는데, 농어업유산에서 중요시하는 '유산의 역사성과 독창성', '유산의 보존과 활용 가능성', '참여 등의 프로젝트 수행성'과 맞닿아있다. 농어업유산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에코뮤지엄을 통한 유산관광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 수리 관개시스템' 농어업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방안으로서 유산관광,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을 적용해보고, 그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첫째, 일반적인 문화관광

3) 현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도 돌밭담이며, 벽골제는 국가중

과 차별화되는 유산관광의 특징을 살펴보고, 농어업 유산관광의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유형을 들여다보고,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에 적합한 방안을 탐구한다. 셋째, 에코뮤지엄 조성전략을 지평선농업지역에 적용해봄으로써 농어업유산의 에코뮤지엄화에 대한 가능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는 2012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시기와 맞물려 있다. 윤원근 & 최식인(2012)이 한국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과 추진방향을 정립했으며, 손호기, 김상범, & 신용광(2012)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업유산 제도화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신용광, 김현중, 김상범, & 유승훈(2012)은 농어업유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농어업유산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연구도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거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돼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점이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유산 자체의 특성으로 옮겨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경제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연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농어업

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도와 제주도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 지정된 두 곳은 이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반면, 새롭게 지정을 추진 중인 농어업유산은 아직 활성화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가 목적하는 탐색적 적용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 사례를 통해 지역 활성화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산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농업·농촌자원을 관광 측면에서 활용해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예, 김성진, 2001; 최재웅 & 김동엽, 2006; 최자운, 김상범, & 김은자, 2011; 이정원 & 김은자, 2012)는 농업·농촌자원의 활용에 집중하는 나머지 유산적 가치의 관심과 이에 대한 보존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일한 농업·농촌자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유산’으로서의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활용은 기존의 방식과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 최근 들어 농업유산 자체의 특성, 즉 유산적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에코뮤지엄을 적용해 농촌 활성화를 꾀하려는 방안 역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예, 방한영 & 최효승, 2002; 권사빈, 2004; 최효승, 2007; 손호기, 이동관, & 김상범, 2011; 배은석, 2012; 황국웅 & 장병관, 2013). 그런데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코뮤지엄이 실현된 사례는 없다.⁴⁾ 논의됐던 많은 사례들이 대부분 기존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데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에코뮤지엄이 ‘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 아닌 일반적인 농업·농촌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뮤지엄이 생태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전승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유산이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도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 에코뮤지엄 연구는 유산적 가치가 미약한 자원을 대상으

4) ‘철암 빌리지움’, ‘청주역사자료관 에코뮤지엄센터’ 등이 추진됐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게다가 두 사례는 지역주민의 이주와 자치단체장의 교체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이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진행형이다.

로 하는 한계가 있다. 농어업유산의 활용전략으로 에코뮤지엄을 통한 유산관광 활성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유산과 유산관광

2.1. 개념과 특징

과거로부터 현대에 전승되어 오는 것 중에서 유사한 용어-예, 민속, 전통, 문화재-가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을 “물질적 재산을 뜻하는 의미가 강해, ‘자식(후손)에게 물려주는 물질적 재산’의 의미로 많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인지 1962년 제3공화국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에 문화재란 말을 더 선호한다”(한숙영 & 김사현, 2007: 211-212)는 지적도 있지만,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개념이 정반대다. 문화재(culture property)는 소유권이 특정한 공동체 혹은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승의 의미를 내포한다(함한희, 2012).

전통과 유산이라는 개념에서 생기는 차이는 범위와 관련돼 있다. 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전통이 다 전승돼 현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 개념인 반면, 유산은 현재에 전승되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민속과 유산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민속은 기층민의 생활습속이라는 계급성을 띠지만, 유산은 계층적 함의가 없이 탈계급적 특성을 갖는다. 과거 왕실, 양반, 하층민이 누리던 문화라도 우리 민족의 것으로 인식된다면 유산에 속한다.

이와 같이, 유산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공동체와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유산의 일부로 보면서 공유하는 유형의 것과 그 안에 깃들여 있는 무형의 지식, 기술, 가치를 모두 아우른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첫째,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대상물 자체가 유산이 되지는 않으며, 대상물 자체만을 중요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산에 담긴 가치로서 문화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둘째, 공동체 때로는 개인이 그 유산을 자신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유산에 담긴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유산의 개념에서 중요하다. 셋째, 이와 같이 유산에 담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이 맥락적(context)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산관광자’(heritage tourist)와 ‘유산지를 관광하는 자’(tourist at heritage places)를 구분하는 Poria 등(2003: 248)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Wailing Wall) 방문자를 대상으로 유산관광을 연구한 이들은 방문대상지 속성에 대한 사전인지, 방문동기, 개인의 인식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산관광객의 속성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유산적 속성을 모른 채 방문한 관광객, 둘째, 유산관광지라는 속성은 알았으나, 애초부터 방문동기가 다른 관광객, 셋째, 유전적 속성 때문에 방문했으나, 그러한 속성이 자신과 관련된 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문자, 넷째, 유전적 속성이 동기가 되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속성이 자신과 관련한 유산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관광객으로 구분한다. 포리아 등은 네 번째 정의만이 ‘진정한’ 유산관광객이라고 규정한다. 역사성(공급 측면)과 개인의 지각 측면(수요 측면)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강조하는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수요적 입장이 강조될 경우 마케팅 기획이 혹은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영자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산관광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 큐레이터, 역사학자와 같이 유산의 보호·보전에 중점을 두는 공급 측면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사현, 2006: 247). 이와 반대로, 개인의 지각 측면은 무시한 채 공급자 입장만 강조하다보면, 첫 번째 유형처럼 유산관광지에 있으면서도 유산적 속성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놀이’나 하는 의미 없는 유적관광지로 전락될 수 있다.

2.2. 유산관광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유산관광자는 유산관광 매력물의 분위기, 배치 및 설계 디자인 요소에 따라 재방문 의사나 구전 의도가 달라지며, 유산관광 매력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예, Bonn, Joseph-Mathews, Dai, Hayes, & Cave 2007). 또한, 유산관광자는 일반관광객에 비해 유적지에 머무는 체재일 수가 길며,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지출비용이 높다. 미국여행산업협회(TIA, 1997)에 따르면 유산 관광자는 1회 여행 평균 4.7박에 615달러를 소비한 반면, 일반 관광자는 1회 여행 평균 3.3박에 425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유산관광자는 고가치 관광자로 불리며, 그런 만큼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다.

유산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진정성’이다. 문화유산관광을 연구한 McKercher & du Cros(2002)에 따르면, 문화와 약간의 체험을 원하는 ‘문화 관람 관광객’(Cultural sightseers)은 흡족한 경험을 위해 객관적 진정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보다 깊이 있는 문화적 체험을 희망하는 ‘문화 목적 관광객’(purposeful cultural tourists)은 친숙함보다는 진정성을 더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목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

관광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인위적일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산관광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특성은 ‘교육성’이다. 유산관광의 대상물이 유산이기 때문에 교육적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성에 기반을 둔 교육적 체험이야말로 유산관광자를 유산관광지로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요인이다(Tunbridge & Ashworth, 1996; McKercher et al., 2004에서 재인용). 실증적 연구에서도 교육적 가치가 재방문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예, 한숙영, 2006).

하지만 교육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관광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산관광의 세 번째 고려요소로서 ‘엔터테인먼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Jones & Robinett(1998)은 교육적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유산관광지의 매력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본질은 관광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발 더 나아가 유산관광자에게 있어서 진정성보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예, Rojek, 2000).

유산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마지막 고려 요소는 일상생활과 다른 전통적인 진정성과 과거에 대한 동경으로서 ‘향수’(nostalgia)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유산관광의 기본 동기 중 하나이며(Zeppal & Hall, 1991),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 인간성 상실로 인한 과거에 대한 동경은 인간성 회복, 정신적 가치와 진리 추구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전명숙, 2006) 유산관광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유산관광의 실천주체 역시 유산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지고 있다. 유산관광은 유산의 가치를 향유한다는 측면, 특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점에서 관광활동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김용근, 2009). 이와 관련해 Saarinen(2006)은 자연적 자원의 보존에 초점을 둔 ‘자원

중심'과 경제적 지속성을 강조한 '활동 중심'의 한계를 보완한 '공동체 중심'의 유산관광을 제안한다. 공동체 중심의 접근은 유산을 비롯한 자원 보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통한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종합하면, 유산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교육성·엔터테인먼트·향수 등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산관광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유산관광의 방안으로 에코뮤지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코뮤지엄은 유산을 보존·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산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진정성, 교육성, 엔터테인먼트, 향수를 담아낼 수 있다. 특히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핵심요소로 삼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유산관광을 위한 공동체적 접근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

3. 에코뮤지엄과 농업·농촌자원

3.1.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징

에코뮤지엄은 1973년 프랑스의 학자인 앙리 비리에르(Georges Henry Rivière)가 인간, 자연, 지역유산을 결합해 만든 개념으로, 생태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 모두를 아울러서 특정한 유산지역을 뮤지엄 범위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르네 리바르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주민을 주인으로,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축적시켜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Rene, 2011: 배은석, 2012: 47에서 재인용)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에코뮤지엄은 지역,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적 당위성, 거류민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한다.

시간과 공간이 중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특정한 유산과 지역은 특정 시기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과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대상에 오랜 시간과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하나의 지층처럼 쌓여 있다. 에코뮤지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산의 현대적 의미를 보여주는 공식적 특성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의 실천방법인 것이다.

기본조건으로서 박물관(Museum), 형태적 특징으로서 유산(heritage), 그리고 수법적 특징으로서 참여(Participation)를 에코뮤지엄의 3요소로 부른다(大原, 1996; 손호기, 이동관, & 김상범, 2011에서 재인용). 에코뮤지엄의 적용방안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이 3요소가 균형이 잘 맞고 네트워크가 짜여 있어야 이상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적용계획을 수립한다(예, 최재희, 2002, 장훈종 & 정종완, 2009 등). 최근에는 에코뮤지엄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이 맞춰지면서 콘텐츠(contents)를 포함시키기도 한다(예, 배은석, 2012).

기본조건으로서 ‘박물관’은 중핵박물관(core museum), 위성박물관(satellite museum), 발견의 길(discovery trails)로 구성돼 있다. 최재희(2002)는 유산, 주민의 참여, 박물관 활동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중핵박물관으로 보고,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결핍될 경우 위성박물관으로 본다. 또한, 각 박물관과 유산들을 이어주는 길을 발견의 길, 또는 탐방길로 부른다. 때로는 에코뮤지엄의 영역(territory)이 넓을 경

우 위성박물관이 중핵박물관의 별관 기능을 하는 별관(annex)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장훈종 & 정종완, 2009: 283). 각 요소들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유산의 통시적, 공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

형태적 특징으로서 '유산'은 현지에서 보존, 그리고 활용의 대상이 되는 에코뮤지엄의 전시품으로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으로 구분되며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상징한다. 전통적 박물관에서 유산은 탈맥락적인 유형적 대상물에 불과하지만, 에코뮤지엄에서는 유형유산을 비롯해, 장소, 무형유산, 심지어 지역주민까지 포괄한다.

수법적 특징으로서 '참여'는 지역주민이 함께 에코뮤지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관리·운영하며, 지역주민과 지역 공무원, 지역 예술가, 지역 연구자 등이 학예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에코뮤지엄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는 행정과 주민의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관리·운영위원회,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술위원회, 위성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용자(사용권자)위원회 등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新井重三, 1997: 18-20)

에코뮤지엄의 유형은 설립목적에 따라, 혹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상에 따라, 때로는 유산의 종류(자연유산, 산업유산, 역사유산 등)별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을 종합해 배은석(2012)은 대상 지역 및 유산의 유형을 구분해 농촌형, 산업유산형, 자연환경형, 역사문화형, 테마파크형 에코뮤지엄으로 나누고 있다. 농업·농촌유산의 지역을 감안하면 농촌형이 적합하나, 농업·농촌경관, 유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른 유형도 가능하다.

3.2. 농촌형 에코뮤지엄의 사례 분석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섬진강 발원지 에코뮤지엄, 지붕 없는 농촌 전원박물관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운다. 추진과제로 '핵심 거점 개발', '연계망 개발', '면 소재지 중심기능 강화', '에코뮤지엄 추진인력 양성 및 추진체계 확립'을 설정했으며, 핵심거점 개발과 연계망을 개발해 면 소재지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조사단, '월간백운' 발간, 면 소재지 간판개선, 생활문화, 공공미술, 면 정주기반 확충, 작은도서관, 마실길 조성 등이 구체적인 사업이다. 이 중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마을주민의 글씨체를 본 따 진행한 마을 간판 정비사업은 백운면 에코뮤지엄 방문객의 눈길을 끄는 대표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농로자전거길과 정미소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한 정미소 미술관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방문객의 관심을 끄는 사례들이다.

유산관광의 핵심요소별로 살펴보면 백운면 에코뮤지엄은 진정성, 공동체 중심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크다.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장치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곳곳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의 특성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미약하다.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추진된 간판사업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지만, 그것이 관광객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유산관광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깃대' 유산과 킬러콘텐츠가 없어 에코뮤지엄으로서의 관광매력도 역시 높지 않다.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에코뮤지엄의 중핵 박물관, 위성박물관과 같은 핵심 사이트나 각 사이트를 연결하는 발견의 길과 같은 명확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미소 미술관 등의 사이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유산관광자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지역의 유산, 자연, 생업에 관한 많은 조사와 학습과정이 관광콘텐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백운면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공급자(지역주민) 중심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백운면 에코뮤지엄의 방문 또는 재방문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유산의 상징성이 뛰어나거나,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 관광매력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백운면 에코뮤지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형 에코뮤지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농촌형 에코뮤지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산관광자의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테마파크형 에코뮤지엄의 특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알사스(Alsace) 에코뮤지엄은⁵⁾ 1971년에 역사·고고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알자스의 전통건축유산이 점점 훼손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ommersdorf이라는 작은 마을의 건물을 다른 장소에 똑같은 모양으로 재건축하면서 시작됐다. 1980년 9월, Koetzingue 신문사 건물이 처음으로 지어졌으며, 약 20여 채의 집을 복원해 1984년 에코뮤지엄으로 개관했다. 첫째 75,000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자 각종 후원이 이어졌고, 특히 건물 내부를 채울 수 있는 가구, 의상, 자료, 사진 등이 기증됐다. 1985~1987년에는 15세기 말의 파편과 도시의 중세 성벽 조각을 사용해 요새를 재건축했고, 1994년에는 도자기 아틀리에를 개장했다.

알사스 에코뮤지엄이 인기를 얻은 데는 진정성에 있다. 관광시설로서 테마파크는 전통적 형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알사스의 건물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원래의 그것이다. 그 안에 채워진 콘텐츠도 모조품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사가 담긴 진품 유산이다. 진성성 있는 건물과 생활도구, 개인기록물은 프랑스 남

5) 이하 내용은 <http://www.ecomusee-alsace.fr/fr/>(프랑스 알사스 에코뮤제)를 참조

부지방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향수를 제공한다.

〈Figure 1〉 프랑스 알사스(Alsace) 에코뮤지엄 조성 과정 및 프로그램

또한, 마을 건물만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짐수레 제작자, 도공, 구두기술자, 마구기술자, 석공, 목수, 대장장이 등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회, 역, 장인 아틀리에, 방앗간 등이 있고 각 길마다 이름도 붙어 있다. 그 외에도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당시 삶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점에서 마을 곳곳에서 염소, 돼지, 오리, 닭 등이 있으며, 돼지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은 2010년 세계여행 안내서인 론니 플래닛(Lonely Planet)이 꼽은 '여행객이 꼭 가야하는 세계의 지역'에 꼽힐 정도로 주요 관광지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상설 프로그램은 수공예 아틀리에, 농촌 여인의 삶, 낚시꾼과 함께 배를 타

고(마을의 강 탐험), 트랙터를 타고 밭 체험, 수레 산책, 선생님에게 듣는 알자스 역사 수업, 1950년대의 회전목마,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과의 만남 등이 있다. ‘1900-1950년의 속옷의 발달과 다양함’, ‘직물과 사람’ 등이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절기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백운면 에코뮤지엄과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유산관광에서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산을 활용한 킬러콘텐츠를 함께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산의 역동적 보존과 지역 활성화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유산의 행위주체(예, 농민)와 행정기관, 유산 관련 이해관계자, 학술 및 창조집단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4. 에코뮤지엄 적용: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 사례

4.1. 대상지 현황 분석

같은 도작지대라고 할지라도 강수량이 많은 동남아시아의 관개와 동아시아의 관개는 그 특징이 구분된다. 특히 부엽(敷葉)공법은 1세기 중국에서 고안된 공법으로, 낙랑군을 걸쳐 한반도, 그리고 6~7세기에 일본으로 전해진 관개기술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수도작은 수천 년의 역사와 더불어 고유한 수리관개시스템을 형성했으며, 그 중에서 부엽공법을 통해 축조된 벽골제는 한반도 고대 수리시설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유산이자 동아시아 농업문화의 독창성과 전파과정을 밝혀주는 연결고리다. 또한, 현재에도 대규모 논농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화석화된 유산들과 구분된다.

벽골제 주변은 고대부터 ‘대평(大坪) 속칭 김제(金堤) 만경평(萬頃坪)’(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 제일의 곡창지대다. 벽골제가 위치한 부량면은 829 가구 중 429 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전통적으로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으로 전체 토지의 79.8%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95%이상이 논이다.⁶⁾ 국가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부량면의 쌀 생산량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작 문화지역임을 의미한다.

환경 다양성 측면에서도 벽골제와 인근지역은 농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2012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벽골제 인근 지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 급 조류(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II 급 조류(큰기러기, 말뚝가리)가 발견됐다.

김제평야는 들이 넓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평선축제는 이러한 경관과 쌀농사 중심의 농경문화 그리고 벽골제를 모티브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011년 세계축제협회(IFEA)가 김제를 세계축제도시로 선정했으며,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작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4.2. 에코뮤지엄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성지역을 분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Mahmoudi 등(2012: 242-243)이 이란의 농촌형 에코뮤지엄을 조성하면서 분석한 틀을 참조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환경적(environmental), 인

6) 김제시 통계연보(2012) 참조.

류학적(anthropological), 경제적(economic), 경관적(aesthetic), 건축적(architectural), 관광적(tourist) 측면별로 지역의 역량과 제약조건을 상호교차 분석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의 가능성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벽골제와 인근 지역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벽골제와 인근지역의 자원 분석

범주	세부 항목	자원의 역량과 제약조건	
환경적 자원	기후/지형/수자원/환경위해요소	역량	사계절 뚜렷, 지평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2급 조류 서식, 저수지, 만경강 및 지류
		제약조건	친환경적 농업 미흡, 도시화로 인한 경관훼손
인류적 자원	문화적특성/인구적특성	역량	대표적 도주문화권, 타 지역보다 젊은층 거주
		제약조건	전통적 무형문화 단절 위기, 창조계급 부재
경제적 자원	접근성/토지이용/시설/생계활동	역량	벽골제단지(테마파크), 박물관·문화시설 조성, 접근성 용이,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제약조건	벽골제 외의 농사지역으로 접근 어려움, 관광산업 연계한 6차 산업화 미흡
경관적 자원	경관/미적가치/토지다양성	역량	넓은 평야, 코스모스길 등 녹색체험길, 수로
		제약조건	도주문화권의 전통적 경관 부재, 지평선 부재
건축적 자원	농촌구조/건축유형	역량	근대문화유산, 전통한옥 및 초가집 등 재현
		제약조건	벽골제 외 지역의 전통적 건축 및 구조 미흡
관광적 자원	관광매력/구경거리/접근로/인프라	역량	벽골제 상징성, 벽골제단지, 넓은 평야
		제약조건	가을철 중심의 콘텐츠, 숙박·위락시설 미흡, 연계관광지 미흡

둘째, 에코뮤지엄에 포함할 유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산은 뮤지엄의 핵심요소이면서 중핵박물관, 위성박물관, 발견의 길 등 에코뮤지엄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이트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주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도보 이동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벽골제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고, 유산관광으로서의 자원을 파악했다.

〈Table 2〉 벽골제 주변 5km 문화재 및 관광자원 현황정리

구분	읍면동	명칭	소재지	비고
문화재	부량면	사적 제111호 벽골제 중수비	부량면 월승리 119	1
	죽산면	등록문화재 제61호 하시모토농장	죽산면 죽산리 570-6	2
	교월동	도 민속문화재 제7호 월촌입석	입석동 417-1	3
		도 민속문화재 제11호 장화리쌀뒤주	장화동 210-1	4
		도 유형문화재 제78호 재궁리석등	제월동 450-6	5
벽골제 관련	부량면	수여거[1문]	부량면 용성리 주변 추정	8
		장생거[2문]	부량면 신용리 199	9
		중심거[3문]	부량면 신용리 219-4	10
		경장거[4문]	부량면 월승리 242 주변	11
		유통거[5문]	부량면 월승리 추정	12
		신타미산	부량면 신용리	13
		제주방죽	부량면 월승리 110 일대	14
		명금산 토성지	부량면 신두리	15
		되베미(승답 터)	부량면 용성리 137-13	16
기타관광	부량면	소설 아리랑 문학관	부량면 용성리 226-23	17
	벽골제 단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부량면 신용리 119-1	18
		김제시 창작스튜디오	부량면 용성1길 24번지	19
		단야각과 단야루	부량면 신용리	20
		벽천미술관	부량면 신용리	21
		벽골우도농악전수관	부량면 신용리	22
		농경사체험관	부량면 신용리	23
	죽산면	감설 정문술 훔궁비	죽산면 홍산리 662-1	24
	교월동	예술가(미술가) 이정훈	연정동 334번지(여연마을)	25

	죽산면	아리랑 문학마을	죽산면 홍산리	27
특성화 사업		우리마을 녹색길 (김제평야 아리랑 길 25.2km): 벽골제-원평천-독길-쌍궁삼거리-내촌마을-하시모토농장사무실-죽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성덕삼거리-광할면사무소-심포항-망해사		

지역과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해보면, 첫째, 유산(H) 측면에서 관련 유산 대부분이 벽골제 주변에 몰려 있다는 점, 지평선이라는 상징성을 가짐에도 지평선 경관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박물관(M) 측면에서 보면, 1개의 중핵박물관과 여러 개의 위성박물관, 그리고 각 박물관과 유산을 연계하는 발견의 길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벽골제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관련 시설, 기관, 주요 현장을 위성박물관과 발견의 길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인 만큼 실제 농사를 짓는 현장, 농민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생활현장으로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요 유산 및 관련 자원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대부분의 자원이 벽골제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작문화를 대표하는 에코뮤지엄을 지향한다면 진정성 있는 현장에서의 체험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벽골제 외의 지역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의 'A', 'B', 'C' 지역 내 농사지대와 마을 자원 중에서 위성박물관이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각 사이

〈Figure 2〉 벽골제 인근지역의
주요자원 분포도

트를 연결하는 발견의 길을 ‘A’, ‘B’, ‘C’ 지역 내에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자원만으로는 벽골제 단지를 잠시 방문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진정성 있는 수도작 문화 및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을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성 있는 ‘문화 목적 관광’(purposeful cultural tourists)이 되지 않을 경우 재방문 의사가 높지 않음은 여러 논문에서 이미 확인한 바다.

참여(P)의 측면에서 보면, 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소극적이며, 특히 에코뮤지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예, 진정성 있는 체험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 전통적 경관 및 농법의 유지)이 요구된다. 또한, 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유·무형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창조계급으로서 문화예술인, 이해관계자들(관광 관련 업체 및 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해 보인다. 이들을 에코뮤지엄의 주체로 세우는 체계를 시급하게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C) 측면에서 보면, 관광적 효과를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가을을 제외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체류형 관광이 이뤄지지 못해 관광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콘텐츠 개발, 그리고 국제적 행사 등도 구상되어야 한다.

4.3. 적용 사례의 지역활성화 연계방안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리관개시스템으로서 ‘벽골제’, 그리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브랜드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벽골제·지평선농업 에코뮤지엄’으로 명명하고, 유산(H), 박물관(M), 참여(C), 문화콘텐츠(C) 등의 구성요소별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정성과 관련해서 핵심유산인 벽골제와 지평선이 복원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벽골제부터 현재까지 도작문화 수리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복원돼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실현되도록 지평선 경관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형 에코뮤지엄의 진정성은 농촌의 삶이 묻어 있는 산, 숲, 나무, 농가, 당산나무 등의 보존, 그리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알사스 에코뮤지엄은 실제 건물을 그대로 이동해 복원했지만, 벽골제 단지의 숙박시설과 주말장터 등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벽골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벽골제 인근의 지평선농업지대로 영역을 넓혀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을 콘텐츠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핵박물관과 농업유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위성박물관, 그리고 유산을 연계하면서 동시에 농업경관을 활용하는 발견의 길이 조성돼야 한다. 지나치게 벽골제 중심의 점(點)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線)적인 연계전략 또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벽골제 단지를 중핵박물관 지대로 설정하고, 주변의 창작 스튜디오, 아리랑문학관 등을 위성박물관으로 연계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설정해 도작문화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친환경 농법(참깨, 따오기 농법 등)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구역을 설정해서 위성박물관화 하는 방안도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대상물, 공간도 중요한 박물관 자원이 되기 때문에 당산나무, 들노래 현장 등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 일제시대 쌀수탈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 ‘아리랑 문학마을’ 역시 중요한 위성박물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라이주조(新井重三, 1997)에 따르면, 에코뮤지엄의 조직에는 행정과 주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관리·운영위원회, 연구자로 구성된 학술위원회, 위성의 소유자인 이용자(사용권자)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에코뮤지엄의 일반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체계로, 유산관광을 통한 지역활

성화와 관련해서는 창조계급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에코뮤지엄이 중요시하는 경관은 창조적 디자인이 가미됐을 때 가치가 높아진다. 관광매력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의 구성과 디자인, 콘텐츠 개발에서 창조계급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창조계급에 기반 해 지역을 개발하는 문화도시 전략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제를 농경(도작)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벽골제·지평선농업에코뮤지엄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부족했던 창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광두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관광두레는 시·군 단위의 관광사업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지역관광 공동체를 말한다.⁷⁾ 관광두레는 관광프로듀서를 두게 돼 있다.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화된 관광사업을 지역주민이 협력적·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여건 진단, 관심 있는 주민 발굴, 실행계획 수립, 주민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⁸⁾

〈Figure 3〉 관광두레 구조

7) 2013년에 지역여건과 사업모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근교(경기 양평군), 접경지대(강원 양구군), 내륙지역(충북 제천시), 해안지역(전북 부안군), 산악지역(경북 청송군) 등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8)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 참조.

넷째,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 측면이다. 우선 숙박관광객의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벽골제에는 한옥숙박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실제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진정성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지평선농업, 혹은 전통적 도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마을 캠핑스테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농촌 지역주민이 캠핑 장소와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방문자는 캠핑과 농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핑 프로그램으로서, 오토캠핑장의 농촌마을 체험형이다.⁹⁾ 캠핑장은 지역특색과 자연환경을 이용해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농촌지역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며, 특히 소규모 투자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안형 숙박시설이다. 지평선과 낙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조망권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캠핑로컬푸드’로 제공한다면 생산-가공-소비-체험이 연계된 가치 ‘농촌마을 캠핑푸드 6차 산업화’도 가능하다.

최근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 상설 브랜드공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평선 경관 및 넓은 평야가 훌륭한 무대이며, 특히 석양의 지평선 농업지대는 유산관광자의 발길을 늦춘 시간까지 붙잡아둘 수 있는 중요한 매력물이다. 벽골제 단지 내 한옥체험공간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경관 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농촌지역에는 rural arts 개념이 활성화돼 있다. 한마디로 농촌

9) 주5일제 정착으로 국민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요구되고, 특히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오토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2년 캠핑인구 200만명에 이르고 성장률은 매년 20~30%이상 증가추세다. 특히 12년 기준 시장규모는 4,000억원이며, 향후 5년 내 1조원 규모 시장 형성 전망(문화체육관광부)이다.

지역 전체가 화폭이 되며, 농촌지역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전시관이 되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대지예술제(大地の芸術祭)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며,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김제평야 전체를 하나의 야외 미술관으로 삼아 농업·농촌예술 콘텐츠(예, 농업·농촌예술비엔날레)를 개발한다면 관광 매력도가 크게 오를 것이다.

〈Figure 4〉 일본의 대지예술제(좌), 영국의 Rural arts(중), 일본의 대지예술제(우)

우리나라 농경문화에는 24절기가 있으며, 각 절기별로 민속행사가 있다. 최근 들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24절기 또는 민속일(예, 대보름날)을 활용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실군 필봉마을 대보름굿은 매년 전국에서 5천 여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작문화 에코뮤지엄을 지향한다면 유형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무형적 측면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경문화의 무형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기를 활용한 체험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며, 특히 민속절기가 갖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관을 활용한 여가공간의 조성도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장소가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일명 ‘논뷰(view)’ 카페이다. 주로 서양인들이 이용하는데, 슬로라이프의 삶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지평선,

그리고 도작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사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별 계획을 에코뮤지엄의 조성단계별(배은석, 201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5〉 논뮴 카페

〈Table 3〉 에코뮤지엄 4요소의 단계별 추진방안

	유산(H)	박물관(M)	참여(P)	콘텐츠(C)
태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골제 관개시스템 복원 • 지평선 경관확보 계획 수립 • 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인벤토리 작성, 스토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박물관, 발견의길 적용가능 자원 조사 • 조사된 자원의 동선 및 내용에 따른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뮤지엄 영역 내 인적자원 조사: 예) 예술인 • 주민(리더), 행정,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뮤지엄 영역 내 운영 프로그램 파악, 평가 • 체류형, 4계절용, 권역별, 기관별, 주제별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구상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세계유산 추진 • 4계절별 경관 발굴, 개발 •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지정 • 대한민국 대표하는 농경문화에코뮤지엄으로서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박물관, 발견의길의 리모델링: 박물관화 • 신규공간 조성: 당산나무, 친환경농법 체험장, 캠핑스테이, 논뮴카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조직구축: 운영위, 학술위, 문화창조위 • 주민 학예사 조직결성, 학습활동 및 운영 • 지역주민 유산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캠핑스테이: 오토캠핑장, 캠핑로컬푸드 • 무형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예) 24절기축제 • 논뮴카페 등 조성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도작 문화 및 관개시스템의 과거, 현재, 미래 재현: 친환경 농법 적용 • 지평선 경관 확보 • 무형유산 전승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핵박물관, 위성박물관, 발견의길 구조 및 공간별 전시·체험 체계 구축 • 에코뮤지엄 영역 외의 농촌자원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간 관광두레운영위결성, 공동사업 • 외부네트워크형성 • 세계적 도작문화연구소 설립, 국제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ral arts 개념의 '국제농경(도작)예술비엔날레' • 브랜드공연 개발: 경관 활용 야간상설공연 추진 • 농경(도작)문화도시 추진

5.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 달성되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2020년까지 25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10개가 된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농업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의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되는 연구나 정책계획에 따르면 유산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을 통한 유산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유산관광의 핵심요소는 진정성, 교육성, 엔터테인먼트, 향수이며, 공동체 중심의 개발과 운영이 강조된다. 유산관광의 핵심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은 유산, 박물관, 지역주민의 참여, 콘텐츠를 핵심요소로 하며, 지역주민 주도과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을 중요시한다. 즉, 유산관광과 에코뮤지엄의 핵심요소와 운영방식은 농어업유산의 가치 및 추진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 및 지역 활성화 연계 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한 유산관광 활성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의 적용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유산 자체는 역사성, 상징성, 특히 진정성이 높으나,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진정성이 약해 재방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보다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관광매력도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창조계급 등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체류형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며,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콘텐츠 개발 역시 미흡하다.

이와 같이 벽골제 수리관개시스템만을 놓고 보면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벽골제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유산관광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으나, 유산관광의 4요소(진정성, 교육성, 엔터테인먼트, 향수)를 대비해보면 유산관광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에코뮤지엄의 4요소(유산, 박물관, 참여,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아직 에코뮤지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살아 있는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농어업유산제도의 목적)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서 에코뮤지엄이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 4요소의 구축을 통해 유산관광 4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에코뮤지엄의 영역 설정, 구성요소별 사이트 구축 및 네트워크화, 지역주민·창조계급·전문가집단·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접근, 중장기적인 콘텐츠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할 경우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을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¹⁰⁾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보더라도 농어업유산 대상의 에코뮤지엄은 현행법을 적용받기 어렵다.¹¹⁾ 현행법을 개정해 농어업유산 대상의 에코뮤지엄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농어업유산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농어업유산 제도와 연계해서 독자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항)

11)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 참 고 문 헌 ■

- 김사현. (2006). *국제관광론: 국제관광 현상의 사회문화론적 해석*. 서울: 백산출판사.
- 김용근. (2008). 도시 관광의 새로운 전개 : 문화역사 자원의 이용과 관리-관광관리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43(4), 47-59.
-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호기, 이동관, & 김상범. (2011).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친환경 농업경관지구 조성계획-충주시 주덕읍 일원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연구*, 18(2), 87-100.
- 윤원근, & 최석인. (2012).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정립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19(2), 465-495.
- 이정원, & 김은자. (2012). 체험요소(4Es) 이론을 적용한 농촌마을의 테마전시관 계획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9(4), 1067-1094.
- 전명숙. (2006).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헬학회논문지*, 6(1), 93-101.
- 최자운, 김상범, & 김은자. (2011). 사대부 시조의 농촌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연구-충남 홍성군 거북이마을-. *농촌지도와 개발*, 18(1), 129-152.
- 최재웅, & 김동엽. (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3), 41-58
- 최재희. (2002). 에코뮤지엄(Ecomuseum) 개념을 도입한 공예박물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숙영. (2006). 유산관광 체험영역에 관한 탐색: 실용적·헤도닉 가치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0(3), 11-28.
- 한숙영, & 김사현. (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3), 209-223.
- 함한희. (2012).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과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발전 심포지엄, 문화재청·전라북도, 전북.
- 오하라 가즈오키. (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김현정 옮김. 서울: 아르케.
- 新井重三. (1997). *エコミュージアム理念と活動*. 東京: 牧野出版.

- Bonn, M. A., Joseph-Mathews, S. M., Dai, M., Hayes, S., & Cave, J. (2007). Heritage/Cultural Attraction Atmospherics: Creating the Right Environment for the Heritage/Cultural Visit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February, 345-354.
- Mahmoudi, B., Shrifi, N., Ahmadianm, R, Sepasi, Y., & Danehkar, A. (2012). Planning of rural ecomuseums in forest rurals in Mazandaran Province, Iran, *Journal of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2(2), 241-246.
- McKercher, B., & Ho, P. S. Y. (2004). Attributes of Popular Cultural Attractions in Hong Ko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2), 393-407.
- Poria, Y., Butler, R., & Airey, D. (2003). The core of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162-178.
- Saarinen, J. (2006). Traditions of sustainability in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4), 1121-1140.
- Zeppel, H., & Hall, C. (1992). Arts and heritage tourism. In Weiler, B. & Hall, C.(ED.) *Special Interest Tourism*. London: Belhaven, 47-68.

Received 5 November 2013; Revised 25 November 2013; Accepted 5 December 2013

The Agriculture Heritage, Heritage Tourism, and Ecomuseum —A Study on Application of Ecomuseum for Linking Agriculture Heritage to Regional Revitalization—

Se Gil Ja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eonju-si, Jeollabuk-do, 560-860,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ctivating methods of heritage tourism by focusing on ecomuseum as regional revitalization strategy of agriculture heritage. Ecomuseum can be a vital tool to actualize the purpos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heritage system, 'dynamic conservation' of 'a living heritage'. According to case study, Byeokgolje possesses high value to preserve and local government is planning to vitalize heritage tourism, but the system of heritage tourism is not properly equipped the four requisites for it (sincerity, educational value, entertainment, and nostalgia). Byeokgolje is insufficient system as an ecomuseum and has some challenging tasks to prepare the four requisites for ecomuseum(the legacy, museum, participation and contents) despite of high possibility. It is necessary that construct the four requisites for ecomuseum and fulfil the four requisites for heritage tourism to achieve the effect of regional revitalization by link to ecomuseum. That is, authentic contents develop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akeholder, and creative class, site

construction, academic approach, and providing the method of residents' income increasing are necessary.

key words : Agriculture Heritage, Heritage Tourism, Ecomuseum

Se Gil Jang is a researcher of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eonju, South Korea.

Address: (560-860) 1696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e-mail) zoru21@jthink.kr, 82-63-280-7173